

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

시 111:1-10

시편 111 편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잘 말해 줍니다.

1 절을 보면, 시편기자 또한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.

하나님을 정직하게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'경외' 입니다. 경외는, **여호와와 그의 크심을 즐거워하고, 그의 존귀하고 엄위하심을 잘 알고, 그의 의로움을 찬양하고, 그 분이 베푸신 기적을 잘 기억하는 것**입니다.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, "하나님을 묵상" 하는 겁니다. 경외심은 묵상에서 나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,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.

또한,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묵상한 것을 실천합니다. 그것은 **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,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**으로 나타납니다.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자, 유익입니다. 하나님이 크심을 알면, 우리는 삶에서 함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,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결정합니다. 또한, 하나님을 크심을 알면, 그 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자연을 묵상할 때, 혹은,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 주신 역사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

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,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첫째, **인도하심의 언약**입니다.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.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.

둘째, **공급하심의 언약**입니다.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.

셋째, **축복의 언약**입니다. 우리에게 영적, 육적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

넷째, **보호하심의 언약**입니다.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

마지막으로, 하나님께서 **우리를 기뻐하실 것**이라고 약속하십니다.

나눔 질문

1.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 나옵니다.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관심을 쏟으시나요?
2.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사모하시나요? 그 가치가 느껴지시나요?
3. 시편 111 편은 특히,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합니다.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나눔 (묵장모임, 세미나 등)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